

개발도상국 청년들의 취업현황과 일자리 수요

작성자 : KOICA 사회개발실 양혜경 차장 / 교육담당



Sectoral Issue Report

2018
Vol. 13

발간월: 2018년 7월

들어가며	02
개발도상국 청년들의 취업현황	03
방글라데시 일자리 수요 예측 사례	08
나가며	10

SDGs 8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 1) 완전고용이란 노동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모두 고용이 가능한 상태를 일컬음
- 2) 생산적 고용은 고용근로자가 빈곤하지 않을 정도의 소비가 가능한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고용을 의미함
- 3) 양질의 일자리는 생산적 고용과 공정한 소득, 안전한 일터, 사회적 보호, 개인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고용과 노동권을 포괄적으로 함의한 개념으로 사용됨.
- 4) KOICA(2015) pp 159-160
- 5) 본고에서 개발도상국은 중진국(middle income countries) 및 저개발국(low income countries)으로 정의함
- 6) 노동시장은 노동서비스(labour services)를 살고 파는 시스템으로서 시장을 칭하며 자영(self employment)과 고용(paid employment)의 형태를 포괄함
- 7) KOICA(2017)
- 8) TVET : Techno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약자로서 직업기술교육훈련으로 번역됨.
- 9) UNESCO(2012)
- 10) ILO 보고서에서 청년은 15세~29세 연령인구그룹을 대상으로 함.
- 11)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국제노동기구를 칭함

들어가며

○ 일자리 관련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¹⁾하고 생산적인²⁾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³⁾ 제공”으로 제시됨⁴⁾

○ 개발도상국⁵⁾의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을 통하여 빈곤퇴치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직업 현황과 일자리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코이카를 비롯한 국내외 개발협력 수행기관들은 개발도상국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으나, 노동시장⁶⁾에서 필요로하는 적절한 스킬⁷⁾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는 지속적인 도전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UNESCO 상하이 TVET⁸⁾ 컨센서스⁹⁾의 첫번째 행동강령은 TVET의 적절성 제고로 정해졌으며,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 스킬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와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해석됨.

○ 본고에서는 개발도상국 청년¹⁰⁾들의 취업현황에 대한 ILO¹¹⁾ 서베이 내용을 간략히 소개를 하고, 비교적 최근인 2016년도에 방글라데시에서 실시한 노동시장 수요조사 사례를 통해 향후 교육분야 직업기술교육훈련 사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동남아시아 베트남 청년들의 취업 현황¹²⁾

12) ILO(2015)

13) ibid 12pp

14) 직종은 국제직업표준(ISCO)에

기반하여 분류함. 관리직(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전문직(professionals), 기능직(technicians), 사무직(clerks), 서비스판매직(service workers, sales workers), 수작업기능직(craft, trade workers), 기계조작조립직(plant and machine operators, assemblers), 농림어업직(skilled agricultural and fishery workers), 단순노무직(elementary workers)

15) 단순노무직(elementary occup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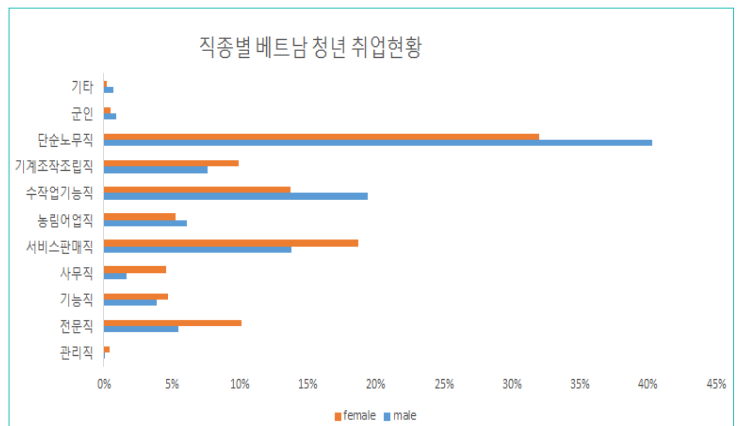
: 별도 정규교육없이 1주일 수준의 현장훈련만으로 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개발도상국 청년들의 취업현황

○ 베트남 조사대상 청년들의 61%가 중졸이하 학력이며 대졸자는 8.5%를 차지함. 약 10%의 청년들이 중등수준 또는 중등이후(post-secondary)수준의 직업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¹³⁾. 청년실업율은 2.8%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산업별로는 서비스산업(36.3%)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33.2%)과 제조업(30.2%) 분야에도 비교적 균등하게 취업하고 있음.

○ 직종별¹⁴⁾로 보면, 전반적으로 단순노무직¹⁵⁾에 가장 많이 (36.4%)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순노무직은 공식 고용(formal employment)보다는 비공식고용(informal employment) 형태로 자영업이나 가족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직종은 수작업기능직으로 16.7%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비공식고용 형태를 보임. 세 번째 높은 순위의 직종은 서비스 판매직으로 1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시 절반 이상이 비공식고용 형태를 띄고 있음.



○ 공식고용 취업자 중에는 여성취업자의 31.6%가 전문직(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과학자, 교수/교사 등)에 종사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그 외에 제조업 분야 직종인 기계조작조립직에도 취업한 여성의 17.6%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여성취업자는 전문직, 서비스판매직, 수작업기능직, 기계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으로 직종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서비스판매직, 수작업기능직, 단순노무직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베트남 산업화와 교육 수준 향상에 따라 여성들에게 제조업, 서비스산업, 지식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됨.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청년들의 취업 현황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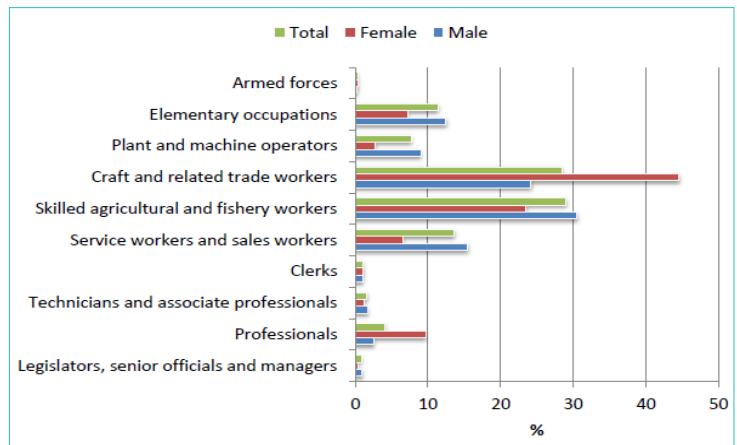
16) ILO(2014-a)

○ 조사 대상 청년의 40.7%는 중졸인 것으로 나타났고, 초졸은 38.6%, 초졸이하는 18.9%, 대졸은 1.8%로 나타나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음. 청년실업율은 10.3% 수준이나 여성의 경우 22.9%로 남성(6.2%)보다 거의 4배 수준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고용형태는 비공식고용이 87% 수준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이점은 취업한 청년 여성의 75%가 기혼이며 20%는 무임금가족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40.6%로 남성 28%보다 높게 나타난 점임. 이는 방글라데시의 주력산업인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작업기능직(28.4%)과 농림어업직(29%), 서비스판매직(13.6%)순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성별로 보면, 여성취업자의 44.5%가 수작업 기능직에 몰려있어(남성 24.2%) 봉제산업에서 기능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문직군에도 여성 취업자 중 9.7%가 취업하여 고학력 여성의 취업 기회가 열려있음을 보여줌. 남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농림어업직, 서비스 판매직(15.5%), 단순노무직(12.5%), 기계조작조립직(9%)으로 나타남.



출처 : ILO(2014-a)

동아프리카 우간다 청년들의 취업 현황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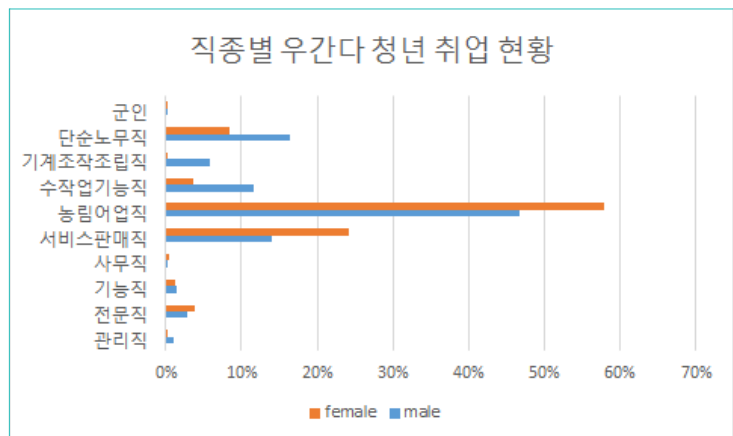
17) ILO(2014-b)

○ 조사 대상 청년의 43.5%는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교육 이수자는 31.7%로 나타나, 75%가 넘는 청년들이 중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실업율은 13.3% 수준이며 여성의 경우 17.4%로 남성(8.7%)보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 비공식고용이 92.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우간다는 서비스산업이 GDP의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농업 등 1차산업은 제조업(28.6%)보다 낮은 25.9%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고용 측면에서는

농업분야가 58.4%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두 번째로 고용이 많은 산업분야는 유통판매업으로 취업한 청년의 16.6%가 종사하고 있음.

- 직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직에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고, 여성 취업자 중에는 57.8%, 남성취업자 중에는 4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판매직 종사자가 19.1%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노무직도 12.3%의 청년들이 고용되어 있음. 남성취업자의 11.6%가 수작업기능직에 취업하여 여성(3.6%)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전반적으로 남성들은 농림어업직, 서비스판매직, 단순노무직, 수작업기능직에 분포되어 취업 중인 반면, 여성들은 농림어업직, 서비스판매직에 몰려있어 여성들의 직업 선택의 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남.



중동 요르단 청년들의 취업 현황¹⁸⁾

- 조사 대상 청년들의 절반 가까이 대학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초졸 이하는 3% 수준에 불과함. 청년실업율은

18) ILO(2014-c)

30%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여성의 경우 52.1%로 남성(22.1%)보다 2배이상 높은 실업율을 보이고 있음. 취업자의 93.8%가 공식고용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자영업 종사 비중은 4.5% 수준으로 나타남.

○ 산업세부분야로 보면, 남성은 주로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35%), 유통 및 자동차수리업(18.7%)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교육분야(33%), 보건복지분야(15%)제조업분야(13%), 공공행정 분야(11%)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군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 서비스판매직(37%), 수작업 기능직(18.7%), 전문직(17%) 순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전문직 포함 관리직/기능직 등 고숙련 직종에 63.5%의 취업자가 집중적으로 몰려있음. 여성청년들의 높은 실업율과 고학력을 고려해 보면, 요르단에서 고학력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의 규모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반면 남성의 경우 전문직/관리직/기술직 고용 비중은 22%로 성별에 따른 분포의 차이를 보임.



출처 : ILO(2014-c)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Ready Made Garments) 일자리 현황

19) BIDS(2016)

방글라데시 일자리 수요 예측 사례¹⁹⁾

○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 의류상품 수출국으로, 의류산업이 총 수출의 80%, GDP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음. 방글라데시개발연구원(BIDS)의 2016년도 조사에 의하면,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재봉사의 비중이 5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 종사자의 77% 이상이 재봉사로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경우 재봉사, 재단사, 다림질원, 품질검사자 등 다양한 직종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

Occupation	Share of various occupations in total production workers		
	Male	Female	All
Cutter Man/Woman	11.1	0.8	5.4
Sewing Machine Operator	31.2	77.2	56.5
Fusing Machine Operator	9.0	0.3	4.2
Over lock Machine Operator	4.5	1.8	3.0
Button Machine Operator	0.8	0.8	0.8
Kansai Machine Operator	0.7	0.1	0.4
Finishing (Iron)	11.1	2.4	6.3
Quality Inspector*	10.2	4.4	7.0
Embroidery Machine Operator	2.1	1.6	1.9
Folder	2.1	4.6	3.5
Poly Man/Woman	1.4	1.0	1.2
Packer/ Packing Man/Woman	9.1	0.9	4.6
Quality Controller*	6.7	4.0	5.2
Total	100	100	100
Average total workers	1274.9	1563.2	2838.1

출처 : BIDS(2016)

직종별 일자리 수요 전망

○ 향후 10년까지 일자리 수요 전망을 보면, 재봉사는 2016년 현재보다 약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기술숙련도별 일자리전망을 구분하면, 향후 10년 사이 비숙련자는 9%, 준숙련자는 8% 감소하고, 숙련자는 1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장 자동화 등 기술도입 증가에 따라 고숙련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방글라데시 국가자격현황을 고려할 때, 준숙련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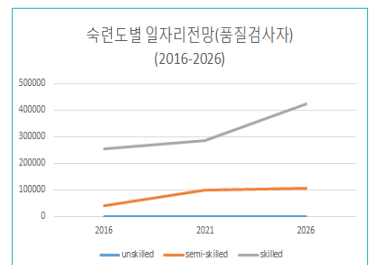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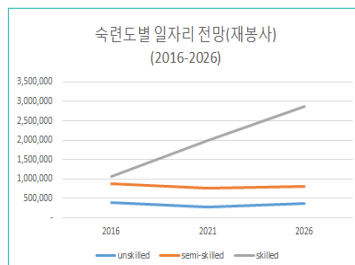
20) KOICA는 현재 다카 한-방 기술훈련센터, 치타공 한-방 기술훈련센터, 라즈사히 기술 훈련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ADB(아시아 개발은행) 공동협력 사업으로 콜나, 실렛, 다카 소재 3개 기술훈련센터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표〉 방글라데시 직종별 일자리 수요 예측(단위:명)

직종 \ 연도	2016	2021	2026
재봉사	2,354,674	3,027,886	4,054,975
품질검사자	294,995	385,401	527,470

경우 초급기술훈련을 수료하고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숙련자의 경우 중급기술훈련을 이수하고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됨. 코이카가 지원하고 있는 기술훈련센터(Technical Training Center)20)는 중급기술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재봉사와 재단사 양성과정을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음.

○ 한편, 품질검사자의 경우 일자리 수요가 2016년 현재보다 약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기술숙련도별 일자리 전망을 구분하면, 향후 10년 사이 준숙련자는 1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숙련자는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검사자는 현재에도 비숙련자에 대한 수요는 아예 없으며, 준숙련자의 경우 중급기술훈련을 이수한 자, 숙련자의 경우는 전문대학 수준의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가 취업하고 있음. 2020년대 이후로는 숙련자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준숙련자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직종에 대한 전문대 수준의 기술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나가며

- 개발도상국의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역량있는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교육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분야는 단순히 교육활동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취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갖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보다 효과적인 직업기술교육훈련 사업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의 일자리 현황, 미래 유망 직종, 직종별 필요한 역량에 대한 수요 분석 등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함.
- 노동시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기술교육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산업섹터를 선정하여 보다 정밀한 스킬 수요 진단과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효과적임. 향후 TVET 사업 발굴 시 협력국 국가 산업발전계획이나 공여기관협의체 활동 등을 예의 주시하여 협력국 산업발전에 부합하는 인적역량 개발 지원이 필요함.

참고문헌

- BIDS(2016) Labour market and skill gap analysis for Readymade Garments Sector in Bangladesh
- ILO(2014-a) Labour market transitions of young women and men in Bangladesh
- ILO(2014-b) Labour market transitions of young women and men in Uganda
- ILO(2014-c) Labour market transitions of young women and men in Jordan
- ILO(2015) Labour market transitions of young women and men in Viet Nam

-
- KOICA(2015) 지속가능개발목표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 KOICA(2017) OECD 스킬전략과 개발협력으로의 확산
 - UNESCO(2012) Shanghai Concensus : Recommendations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on TVET ‘Transforming TVET: Building skills for work and life’